

동아시아 세계론의 허상과 실상

김봉진

문제 제기

- 1) 동아시아 세계론: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책봉(冊封)체제론, 문화권(한자)과 정치권(율령)이 일체가 된 자기완결적 세계 =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주변국에 퍼진 책봉체제를 매개로 형성된 세계
 ← 또 하나의 동아시아 세계론: 호리 토시카즈(堀敏一), 기미(羅縻)체제론,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주변국에 퍼진 기미체제를 매개로 형성된 세계
 Cf. 페어뱅크,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 조공체제 (tributary system) 론
- 2) 니시지마의 동아시아 세계론의 배경에는 어쩌면 과거의 ‘일본중심주의’에 대한 반성과 전후의 ‘미국중심구도(미일안보동맹)’에 대한 저항, 그리고 세계사나 동아시아 지역사 속의 일본사 이해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듯하다. 또 미래지향적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도 있을 듯하다.
- 3) 문제점과 유효성: ①책봉의 이념형? 단순화의 오류, ②책봉의 실상과 콘텍스트 해석 결여; 책봉은 단지 상하관계만 규율하는 규범, 제도은 아니었던 듯하다. 회유, 우호, 동맹, 과시... ③일본중심주의에 의한 오해와 편견, 일본의 문제, 중국 중심, 한국 무시 성향... 단, 그 유효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동아시아의 전통지역질서 또는 ‘국제’관계에서 책봉은 전형적 질서규범이자 ‘외교’행위였기 때문이다. 또한 책봉은 조공과 함께 19세기말까지 대표적 질서규범이자 ‘외교’행위로서 발전적으로 계승,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기미라는 ‘외교’행위는 중국과 주변국, 주변국 간의 관계를 제어하는 현실적 통치 수단이었다.
- 4) 일본의 문제: 자국중심주의, ‘한반도 콤플렉스,’ ‘고향상실’= ‘고대의 주박(呪縛)’
 ‘사이비아(似而非亞)’ 전통 일본: 주변, 느린 역사, 소원(疏遠) 관계, 무위(武威) 전통
 ‘탈아(脫亞) = 침아(侵亞)’ 근대 일본: 독선과 위선, 대동아 공영권, 근대의 주박
 동아시아의 미아(迷兒) 현대 일본: 공통된 역사 인식, 역사 극복과 화해, 입아(入亞)
- 5) 수정과 보완: 동아시아 지역질서와 동아시아 문명/문화 교류권
 - 동아시아 지역질서: 책봉, 조공, 기미 등 다양한 ‘국제’관계가 중국과 주변국 사이는 물론 주변국들 사이에서도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질서
 - 동아시아 문명/문화 교류권: 중국 문명/문화의 영향력이 컸음은 인정. 단, 주변국들의 문명/문화 형성과 이에 따른 중국과 주변국 사이, 주변국들 사이의 문명/문화 교류도 주목해야.
 - 이때 근대주의적 시각, 전통에의 무지, 자국중심의 일국사를 넘어선 ‘지역사’ 연구 필요성.

논문 요약

1. 가네코 슈이치(金子修一), '동아시아 세계론' ('중국의 입장에서 본 삼국통일'은 구두 발표)

1) 동아시아 세계론의 전개

‘동아시아 세계’의 인식: 2 차대전 이전 무역사; 이후 정치사 - 문화사

① 1961 년 마츠모토 신하치로(松本新八郎); 동아시아 각국의 책봉관계에 처음 주목함.

② 1962 년 니시지마 사다오; 동아시아 세계론, 책봉

③ 1962-64 년 토마 세타(藤間生大); 고대 중일, 한일 관계 연구

위 세편의 논문, 연구는 일본의 ‘안보투쟁’이라는 정치정세 속에서 기획, 집필

‘책봉체제’의 제창: 니시지마 사다오, 책봉의 역사적 실례 검토. 단, 실상, 콘텍스트 파악 결여

고구려 원정과 책봉체제: 책봉의 실상과 그 다양성 불 것. 한국 등 주변국 무시 성향

2) 동아시아 세계론과 그 전개

‘동아시아 세계’의 제창: 중국 중심의 책봉체제가 그 형성의 열쇠 ← 주변국 주체성 무시,

그러나 일본 학계에서는 널리 수용 Why? ‘한반도 건너편’ 중일관계 속 일본사 보기.

예외: 한국 고대사 연구가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 기마민족 도래설

호리 토시카즈의 동아시아 세계론: 기미 중심, 이에 따라 서북 지역의 주변국 중시

내신과 외신: 주대(周代)의 외신(外臣) 제도; 책봉체제 이념을 바탕으로 성립

한대의 외신 제도; 주변국으로 확대, 책봉체제 = 동아시아 세계의 출발점

내신과 외신의 구별은 위진 남북조 시기에 사라짐.

3) 동아시아 세계론의 의의와 과제

‘책봉체제’의 발상: 한대 ‘20 등작제’에 주목, “일본사 연구와는 전혀다른 공간”의 뜻은?

책봉체제론과 작제: 중국과 한국의 역사 관련 속 일본사 보기? 그러나 실은 ‘한반도 건너편’

동아시아 세계론의 문제점: ① 책봉체제와 동아시아 세계의 범위

② 책봉이란 어떤 관계? 왕, 가한(可汗) 등 칭호, 그 범위의 광역성, 그 종류의 다양성

책봉의 다양한 성격: 주변국 고유의 칭호(가한), 본국(本國)왕, 군(郡)왕, 덕화(德化)왕...

‘발해’라는 칭호: ‘발해군왕’이란 작위가 발해라는 본국명으로 변한 특수례.

4) 동아시아 세계와 책봉체제에 관한 실증의 문제

국제관계에서 왕호의 성격: ‘동아시아 세계’란 일종의 작업가설

그런데 이성시는 한자 전래 방식을 검토; 중국의 매개없는 주변국 사이

왕호의 다양성과 그 변화

‘책봉’과 ‘기미’의 문제점: ‘책봉’의 정의가 어렵다. 실은 당대 이전 ‘책봉’ 용례 거의 없다.

오대(五代)에 출현하는데 그것도 극히 드물고 이민족에 한정된 것도 아니다. 명청시대에

이르러서야 많이 쓰인다. 그런데 명칭 정사에 다수 기록된 책봉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어렵다.

‘기미’의 용례도 많지 않다. 기미의 정의, 범주 설정도 검토 과제. 기미와 기미주 구별할 것.

‘책봉’의 범주 설정; 어떤 칭호까지를 책봉에 포함시킬 것인가? 왕호 이외에 무관 칭호
북방민족·동남아시아 나라들: 중국과 북아시아 관계를 중시하는 연구. 책봉체계의 실증
부족. 중국 중심과 일본 중심의 차이.

동남아시아의 책봉: 칭호의 수여 형태가 동아시아와 다름.

5) 남은 과제

각각의 동아시아 세계: ①실증 부족, ②책봉의 정의 불가능, ③책봉과 기미의 차이 검증
불가능, ④사료의 한계

일본의 수, 당 국서 문제: 일본중심주의, 대한반도 국가들에 대한 우월의식(韓消シ)

고대의 주박 니시지마도 예외 아니었음.

화이사상의 두 갈래

새로운 과제: 중국중심의 한계; 주변국들 각각 동아시아 세계, 책봉체계를 만들려고 했다.

소중화 의식; 동아시아 세계의 국가들 사이에 강했다.

일본을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세계론은 일정한 유효성을 지닌다?! (352 쪽)

일본의 문제; 고대의 주박, 일종의 콤플렉스로부터 ‘단힌’ 중화의식, 화이관 전통 강함.

‘중국의 입장에서 본 삼국통일’: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사료 모음과 노트 정리; 논리, 실증 부족

특히 연구 시각의 큰 문제; 북방민족의 왕조들과 통일신라의 차이를 보는 시각에 심각한 편견
그 편견의 기원은? 그 실체는? 누가, 언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2. 이성시, '동아시아 세계론의 재검토'

- 1) **니시지마의 동아시아 세계론**: 60,70년대 체계화, 일반이론의 역할; 그 중심은 책봉체제론
문제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 사상(事象)과 어긋남. 따라서 '이론'으로서 성립 불가.
그러나 이를 대신할 새로운 이론은 아직 없다.
- 2) **동아시아 지역의 발견**: 전근대에 하나의 구조를 형성한 세계, 그 세계의 구조적 시스템
동아시아 세계는 중국문화(한자를 매개로 중국에서 기원한 문화; 유교, 한역불교, 율령)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자기완결적) 문화권
책봉체제: 중국과 주변국과의 국제관계, 질서구조; 冊(임명서)으로 작위를 封하는 행위, 군신관계
동아시아 세계의 구성원: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문제점: 국가 상호간의 역학관계 즉 국제관계의 실체나 주변국 사이의 국제관계를 놓침
중국과 주변국과의 책봉관계란 그 '역학관계'의 매우 한정된 일부(호리 토시카즈)
역사적 사례의 미흡; 당대(6세기-8세기), 동변의 고구려, 백제, 신라, 왜, 발해
당대 국제관계의 중심; 서변의 중앙아시아(서역)이나 서방의 제국이
중국, 책봉과 관계없는 주변국 사이의 문화 교류, 전파; 정치권의 매개가 없는 문화권
- 3) **시대의 산물: 현실적 과제와 연결**
배경: 일본중심의 황국사관을 극복하고 세계사, 지역사 문맥 속에서 일본사 이해.
영향: 우에하라 센로쿠(上原專祿)의 세계사 구상(미일안보계정 반대, A·A 비동맹연대, 제3세계)
근대 이후 구미중심의 하나의 세계사 ← 근대 이전 복수 세계의 병존
미 제국주의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의 단결 → 연대 고대 이래의 동아시아 세계
- 4) **결여된 논의: 근대 일본의 동아시아 질서론**
논리 비약: 대동아 공영권과 동아시아 세계론의 관계가 언급되지 않음.
역사 덮기: 동양주의, '침아(侵亞)'의 아시아 연대론, 동아 신질서론, 대동아 공영권론
한일 역사 대화의 엇갈림: 동아시아론, 동아시아 공동체론 - 공명반(共鳴盤)의 결핍
한국의 역사 대화; 19세기 후반 즉 근대 이후
일본의 역사 대화; 1945년 즉 현대 이후 (→ 과거 무지, 미래 맹목; 근대의 주박)
관심 대상과 연구 시점의 불일치
연관성?: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구도(냉전구도)와 과거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 5) **문화권으로서의 동아시아**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육: 일체성, 공통성 중시; 동아시아 세계론을 의식? 그 영향?
일본의 탈동아시아(사) 성향: 이질성, 다양성 중시
- 6) **맺음말**: 한일 대화를 통하여 동아시아 세계론을 초극하는 미래지향의, 새로운 틀?